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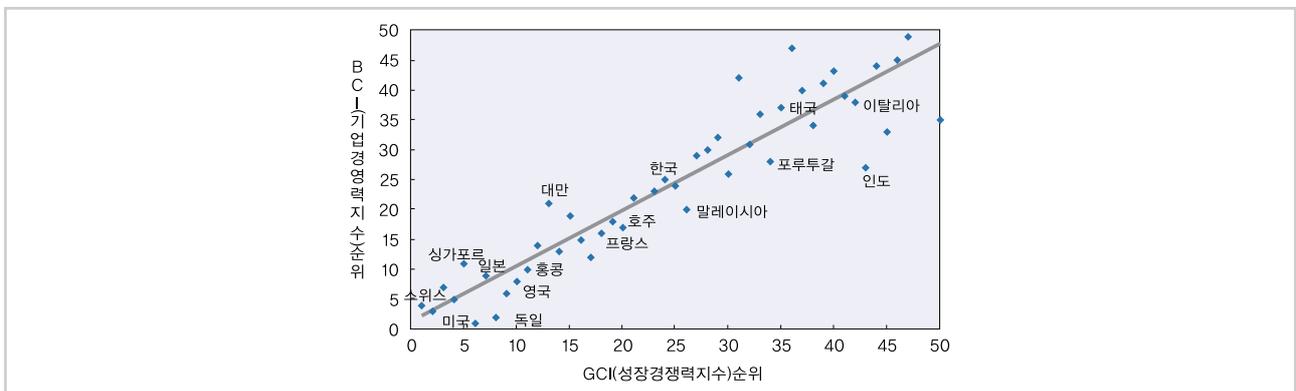
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의 시사점

朴 在 夏 (先任研究委員, 3705-6317)

최근 발표된 WEF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정책의 효율성 제고, 노사관계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- 세계경제포럼(WEF)이 9월 26일 발표한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6~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25개 조사대상국 중 24위로 작년 대비 5단계 하락하였음.
-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3위(2001년), 21위(2002년), 18위(2003년), 29위(2004년)를 기록하다 작년에 19위로 상승하였으나 이번에 다시 24위로 하락하였음.
- WEF는 금년부터 평가항목을 기본요인, 효율성 증진요인, 혁신요인의 3대 분야로 나누고, 조사대상 국가를 1인당 GDP 기준으로 요소주도형(\$2,000 미만), 효율주도형(\$3,000~\$9,000) 그리고 혁신주도형(\$17,000 초과) 경제체제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세부항목의 가중치를 차별화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.
- 금년도에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환경(13위), 기업혁신 잠재력(15위), 과학기술수준(18위), 의료 및 기초교육(18위) 항목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나 비협력적인 노사관계(114위),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의 배타성(95위), 정부규제(50위), 조세의

〈그림〉 WEF 산정 국가경쟁력 지수의 국가별 비교



자료 :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6-2007.



근로투자의욕 저해(72위),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(86위) 등의 순위가 작년보다 급락하여 전체 순위가 하락하였음.

- 한편,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발표된 국제경영개발원(IMD) 세계경쟁력 연감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국 61개국 중 38위로 작년 대비 9단계 하락하였음.
 - WEF의 경쟁력 보고서가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가능성 등 국가경쟁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, IMD 보고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능력이 주요 평가 관점임.
 - IMD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직·간접 투자, 내국인의 해외투자, 첨단 기술분야 수출 등 경제운영성과 분야는 작년보다 상승하였으나 정부재정, 금융기술, 숙련노동자, 정부정책의 안정성 등 정부행정효율 분야와 기업경영효율 분야에서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.
 - 특히 우리나라는 인적자원 면에서 국제적 관리인력 및 금융기술이 각각 50위, 61위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, 노동환경 측면에서도 노사관계가 61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가장 적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음.
- 두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거시경제지표와 성장 잠재력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, 정부정책의 효율성, 노사관계, 금융인력 및 기술 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WEF와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통계적 분석과 설문조사 항목으로 구분되어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설문조사 항목의 경우, 조사대상자인 각국 경영진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, 설문조사 시점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설문조사 대상자의 현실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.
 - 예를 들어 금년 설문조사 시점이었던 금년 1~3월 중의 유가급등 및 환율하락 등 경제여건 악화와 양극화 및 증세 논란, 외국인의 적대적 M&A 논란 및 이와 관련한 외국자본 과세문제, 현대차 비자금 수사 등이 설문조사 결과에 부정적으로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관련 설문항목에서 작년보다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음.
 -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우, WEF와 IMD의 경쟁력 순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, 세부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양 기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평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.
- 비록 WEF의 조사방식과 결과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, 그 결과가 조사대상 기업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향후 정부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일관성 유지, 노사관계 개선 등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 -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양 기관의 경쟁력 순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, 그 결과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바람직함.